

캐나다 유학 준비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중인 한 학생으로써 이렇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은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안광숙이라고 하고, 캐나다에서 생활한지 20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캐나다에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과 멋진 친구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해 오면서 배우 것이 정말 많습니다. 단지,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확장시킨 것 뿐 아니라, 제 스스로 제 자신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국적이 다른 친구들, 동료들과 어울리는 방법 등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해 왔지만, 특히 ISS에서는 학술적인 영어와 비즈니스 영어를 캐나다에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러 선생님들과 영어를 구사하는 수준이 매우 높은 타국 친구들과 함께 균형감 있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밴쿠버 국제 공항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 근무 기간 동안 미국인과 중국인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공항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다양성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세상을 향한 저의 견해도 조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목표를 생각해 보시길 진심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목표를 간과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무리 없이 적응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문제점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캐나다에서 먼저 어학연수를 한 선배로써 여러분께서 느끼게 될 한국과 사뭇 다른 환경 속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영어로 의사 소통하는 것과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의 좌절감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외로움과 좌절감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향수병과 공부를 충실히 하지 않는 나태함과 연결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 부모님과 친구들과 스카이프를 연락을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 음성통화 보다는 화상대화가 그리움을 덜 느끼는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유학중인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통화시간에 제한을 두시길 권장합니다.
- 한국친구들 보다는 국적이 다른 친구들과 교체하시길 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어실력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여러분의 견해를 넓히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캐나다에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 하십시오. 이것은 캐나다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 한국의 상징물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길 권합니다. 캐나다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질문합니다.
- 캐나다에 오시기 전, 한국에서 하실 수 있을 만큼 영어공부를 하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이 알수록 영어를 습득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갖고 계신 정보의 양이 현지 적응을 위해 매우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서 가이드북들을 비교하시면서 한 권 정도 구입을 권합니다. 서적 이외에도, 캐나다에 연수를 다녀온 지인 및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 해두셨으면 합니다.

- 벤쿠버에는 한아름 마트 같은 한국 슈퍼마켓들과 식당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음식을 드시는 것, 한국 상품을 구입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성취의 결과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건데, 저의 조언이 캐나다에서의 여러분들의 목표를 성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Kwang-Sook Ahn

2011년 12월 1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안광숙 드림.